

19세기 말 조선 지방의 지식 공간
- 오형묵의 사환일기를 중심으로 -

안정은(충남대)

목차

1. 머리말	1
2. 오형묵의 관직생활과 지방에서 편찬한 저술	2
3. 관아필사본과 아전의 서역	8
4. 맺음말	13

1. 머리말

이 논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에서 아홉 지역의 수령을 역임한 吳弘默(1834~1906)의 사환일기를 중심으로 그가 지식을 보존하는 공간으로서 지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으며, 어떠한 정보를 기록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오형묵은 총 10종의 仕宦日記를 남겼고, 초기·중기·후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의 사환일기는 工桑所의 監董郎官을 지내면서 기록한 『工桑所實錄』과 영남 지역을 구휼하기 위해 別餉使로 임명되어 기록한 『嶺南救恤日錄』이다. 이후 江原道 旌善을 시작으로 慶尙道 咸安·慈仁·固城, 全羅道 智島·麗水·益山, 慶尙道 眞寶, 忠清道 平澤¹⁾까지 총 아홉 지역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일기를 남겼는데, 그때의 일기는 ‘叢瑣錄’으로 명명하였다. ‘자잘한 것을 모았다’라는 叢瑣의 뜻처럼, 공무 중에도 사적 영역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기에 기록하였으며, 詩文을 다수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중기의 사환일기로는 『旌善叢瑣錄』·『慈仁叢瑣錄』·『咸安叢瑣錄』·『固城叢瑣錄』·『智島叢瑣錄』이 현전한다. 후기의 사환일기는 「瑣言」으로, 『총쇄록』에서 詩文을 제외한 형태인데, 여수·익산·평택의 일기는 「瑣言」 형태로 남아 있다.²⁾

조선시대 사환일기의 대부분이 공무의 내용은 사실 위주의 역사 기술 문체로 작성하였다. 반면 그의 『총쇄록』과 「쇄언」은 관아에서 지내면서 겪은 공무와 자신의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고, 시문을 사용하여 당시의 일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기 자료이다. 그는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총쇄록』 이외에도 지리서인 『輿載撮要』 등 개인의 저술을 다수 남겼을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지식인과 수창하고 난 뒤 酬唱集을 제작하였다. 관아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책을 필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한 필사본을 만드는 등 지식을 보존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처럼 그가 관아에서 지속적으로 문예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관아 아전과 지역 서재의 인물들의 書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가 지방 관아의 아전을 통해 필사본을 생산하여 전통 지식을 보존하였고, 지역의 지식인과의 교류한 결

1) 平澤은 현재 경기도에 속하나, 당대를 기준으로 충청도라고 하였다.

2) 『총쇄록』은 정선·함안·자진·고성·지도에서 남긴 일기의 제목이다. 『총쇄록』은 단독 책이고, 「쇄언」은 오형묵의 또 다른 저서인 『총쇄만선』과 『총쇄초선』, 『총쇄』에 들어있는 편목 중 하나로, 「쇄언」은 『총쇄록』에서 시문을 제외한 형태로, 『총쇄록』의 편집본 형태이다. 진보 지역에서 쓴 「쇄언」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필자의 「吳弘默의 仕宦日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참조.

과물로 수창집을 제작하여 당대 지역의 지역민의 시를 보존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대 지방의 지식 공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의 ‘동아시아 지식 공간의 형성’이라는 대 주제 아래 19세기 말 20세기 초 격변기 조선의 지방의 수령으로 재직 중에 기록한 오형묵의 사환일기 『총쇄록』과 「쇄언」을 중심으로 지방의 지식 공간에서 이루어진 출판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오형묵의 관직생활과 지방에서 편찬한 저술

그는 1834년 12월 27일, 아버지 吳山秀(1799~1864)와 어머니 龍宮金氏(1799~1878)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海州, 자는 聖圭이고, 호는 菴園, 菴人, 澤舫이다. 金海金氏 金景得의 女와 혼인하여 3남(學善, 翼善, 克善) 5녀를 낳았다.³⁾

그는 고종 연간의 閭巷人 출신⁴⁾의 문인이자 관료로, 공적 기록물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공상소의 감동낭관과 영남 지역을 구휼하기 위해 파견된 별향사를 수행하고, 이후 9곳의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환 시기 관직마다 일기를 남겼고, 그 각각의 일기는 여러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되었다. 오형묵의 일생이 정리된 행장이나 연보는 미 발견 상태이나,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그의 관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정리한 오형묵의 관직

왕력	연도	나이	관직 기록
고종 14	1877.12.20.	44	守門將
고종 20	1883.01.17.	50	副司果에 임명
고종 20	1883.03.14.	50	軍資監 判官
고종 20	1883.03.17.	50	軍器寺 判官 改差
고종 20	1883.03.25.	50	副司果에 임명
고종 20	1883.10.05.	50	監務官에 差下
고종 24	1887.03.23.	54	旌善郡守에 임용
고종 24	1887.03.25.	54	박문국 주사 오형묵이 外任에 제수됨
고종 25	1888.08.04.	55	정선군수 오형묵과 자인현감 이규학을 바꾸라고 함
고종 25	1888.08.18.	55	通政大夫를 加資
고종 26	1889.03.09.	56	咸安郡守에 임용
고종 29	1892.05.22.	59	이현영이 함안군수 임임을 청함
고종 29	1892.05.26.	59	함안군수에 임용
고종 30	1893.01.29.	60	固城府使에 임용
고종 31	1894.07.18.	61	內禁衛將에 제수
고종 32	1895.06.08.	62	徵稅署長 2등에 제수
고종 33	1896.01.24.	63	智島郡守에 임용
고종 34	1897.04.25.	64	지도군수에서 면직, 麗水郡守에 임용
고종 36	1899.06.25.	66	眞寶郡守에 임용
고종 36	1899.12.17.	66	여수군수 시절 결전의 납부를 지체한 일로 감봉 1개월 징계
고종 37	1900.12.29.	67	진보군수에서 면직, 益山郡守에 임용.
고종 38	1901.02.02.	68	奎羅北道量務監理에 겸임 임명
고종 39	1902.06.23.	69	익산군수에서 면직, 平澤郡守에 임용

3) 안정은(2025), 위의 논문, 27면.

4) 안정은(2025), 위의 논문. 가계와 생애 참조.

고종 42	1905.05.25.	72	정3품에서 종2품으로 加資
고종 43	1906.05.28.	73	평택군수에서 면직

그의 이력 가운데 주목할 점은 정선→자인→함안→고성→지도→여수→진보→익산→평택 총 9곳의 지방 수령에 연이어 역임했다는 점이다. 함안에서는 잉임을 하여 4년 정도 머물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1~2년의 재임 기간을 가졌다. 이 장에서는 오형묵이 지방 수령으로 재직 당시 남긴 사환일기를 중심으로 그가 수령직에 있을 때 편찬한 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스스로 ‘서울 사람’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여러 지방의 수령을 맡으면서 서울과 다른 풍속에 대해 반드시 일기에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수령으로서의 책임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된다. 지방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시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섬 백성들은 하늘같은 성은을 새롭게 이고,	島民新戴聖恩天
고난을 겪었으나, 앞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하네.	經苦須知樂在前
돌이켜 보건대, 신하된 몸이 어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리,	自顧臣身何以逮
재주는 부족하여 시국을 구제할 능력이 없구나.	才疏不合濟時邊

때마침 장마비가 내려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際看梅雨慰民天
임금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아뢰고자 하네.	宛格宸衷辭陛前
정치를 함에 있어 각자의 직분을 따라 행하면,	爲政各隨其分做
먼 변방까지 미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何憂宣化抵遐邊

작은 고을이 밝아지니 바다가 평온해지고,	小局開明鎮海天
문물이 빛나니 전례 없던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煥然文物未曾前
뽕나무에서 누에 자라고, 작은 문자 가르치면 문화가 이루어지니,	桑蟲科斗能成化
더는 세속의 일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네.	無復更思身外邊

농부, 장사꾼, 어부, 소금 굽는 사람, 모두 하늘이 낸 직업이니,	農賈漁鹽各食天
그 문 안에서 스스로 생계를 계획하면 될 뿐.	支分門內計生前
이제는 모두 고루 발전하여 조화를 이루었으니,	一般化育今稱是
누가 다시 ‘바다는 변방일 뿐’이라 말할 것인가?	誰復名言海一邊

『지도총쇄록』 1896년 5월 29일의 일기 속에 있는 시 4수이다.⁵⁾ 智島는 서해안의 섬으로 1895년에 처음으로 郡이 창설되었고, 그곳의 수령을 맡았을 때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그는 좌절과 원망보다는 성은에 감사하였고, 지도라는 먼 변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충분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발전할 것을 말하고 있다. 네 번째 시의 마지막 구의 ‘누가 다시 바다는 변방일 뿐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대목은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⁶⁾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 역시 자신이 머무는 변방을 창조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 그

5) 이 시는 『총쇄』 책7에 「命通引趙允基作詩，疊其韻述懷四截。」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6) 신영복, 『담론』, 돌베개, 2015. 21면.

는 지방의 수령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나치지 않고 일기에 기록하였으며, 결과물로 일기 뿐 아니라 여러 저술을 편찬하였다. 이는 각 지방 정보의 집약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당대 지방의 지리·인물·사건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 중요성을 지닌다. 다음은 오형묵이 지방에서 편찬한 책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역임한 지방 순서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책을 중심으로, 책의 발간 경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⁷⁾

표 2 지방에서 편찬한 책

관할 지역명	책명 / 책 수	성격	소장처
정선	葛來詩	일기, 시집	현존하지 않음
	繡傘詩	수창집	현존하지 않음
자인	春雨室詩	수창집	국립중앙도서관
함안	輿載撮要	지리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
	二樹亭詩叢	수창집	국립중앙도서관
고성	輿載撮要 10책	지리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등
지도	尋眞錄	수창집	국립중앙도서관
여수	聯芳錄	수창집	존경각
	麗水邑誌	읍지	장서각
진보	-	-	-
익산	三呼萬歲帖	수창집	원광대
평택	尙齒會帖	수창집	장서각
	醫鑑集要	의서	규장각

오형묵이 지방에서 편찬한 책 가운데 지역민과 수창한 수창집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春雨室詩』⁸⁾에 수록된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자인에 거주한 문인들과 함안에 거주한 문인들이 일정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외에도 해당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오형묵이 재임하던 시기에 자인이나 함안을 방문했던 문인들의 시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다.⁹⁾ 이 책을 근거로 볼 때, 그는 자인 군수로 재임하던 시기부터 해당 임지와 인근 지역의 문인들로부터 춘우실에 관한 시와 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¹⁰⁾

『二樹亭詩叢』는 1889년 3월 함안 군수로 부임하고 약 1년이 지난 1890년 3월 27일, 무진 정에서 열린 시회에서 지어진 시편들을 엮은 수창집이다.¹¹⁾ 그의 시를 서두로 하여 총 207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름과 주거지를 병기하였다.¹²⁾ 『함안총쇄록』에

7) 현존하는 책, 지역의 지리 또는 인물이 중심이 된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春雨室詩』, 『二樹亭詩叢』, 『尋眞錄』, 『聯芳錄』, 『麗水邑誌』, 『三呼萬歲帖』, 『尙齒會帖』

8) 春雨室은 경기도 永平에 있는 오형묵 부모의 재실이다. 오형묵은 『春雨室實記』를 만들었고,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인물들에게 詩評을 받았다.

9) 인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적었다. ‘永川李秉佑居慈仁’, ‘咸安趙棟奎居咸安’, ‘南平文鳳瓊號竹下居大邱’ 등.

10) 吳弘默, 『慈仁叢瑣錄』, 1889.04.17. “追念茲後, 鄉人士以春雨室詩并序次贈者甚多, 而或拈別韻, 或著長文, 以敘官民相與之意, 而彙分謄寫, 名之曰『春雨室詩編慈仁拾遺』.”

11) 吳弘默, 『咸安叢瑣錄』, 1890.03.27. “詩成日已西沈, 令多士不爲告別, 各任所之, 余乃還衙, 總詩爲一編, 名曰二藪詩叢, 凡三百餘首.”

서도 이 시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함안에 부임한 이후로 공무로 매몰된 채 잠시도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틈이 없었으나, 이날 시회에서 고을의 賢士들과 하루 종일 수작하며 잠시 공무에서 벗어나 쾌활한 하루를 보냈다고 회고하였다.¹³⁾ 이날의 시회는 훗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성대한 시회로 기억되었다.¹⁴⁾

『尋眞錄』은 초대 지도군수를 지낸 오형묵이 1897년 서남해 島嶼를 순행하면서 날짜별로 보고 들은 내용과 지역의 서재를 방문하여 지역 유림들과 함께 시문을 지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¹⁵⁾ 순시를 나간 목적은 첫째, 지도가 군으로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고할 만한 행정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사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백성과의 면담을 통해 민심을 살피고자 했기 때문이다. 『심진록』은 사실상 오형묵의 『지도총쇄록』 중 순시한 일기에 여러 인물의 시를 끼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의 성격상 일기와 수창집의 성격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심진록』의 구성은 「告示各書齋文」과 「尋眞錄序」¹⁶⁾ 그 뒤에 본격적으로 순시가 시작되는 丁酉四月七日丙寅 일기로 시작된다. 정확히 1897년 4월 7일 일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지도총쇄록』과 다른 점은 일기에는 오형묵의 시만 실려 있지만, 『심진록』에는 동행한 石醒 金寅吉, 石樵 金聲鐸, 以堂 吳翼善, 睡山 安炳亮, 錦坡 趙炳鎬의 시가 차례로 실려 있다. 오형묵과 수행한 이들은 거의 매번 시를 기록하였고, 이외에 그날 만난 지도 주민 중 수창한 사람의 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섬마다 존재했던 식자층 총 20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 인물은 총 106명이다.¹⁷⁾ 1차 순시는 1897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였고, 2차 순시는 1897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였다.¹⁸⁾ 2차 순시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일기에 밝힌 『심진록』의 저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섬을 다녀온 일은 그 사연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것이 앞섰고, 그 다음이 교육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교육 관련된 일은 이미 『尋眞錄』에 밝혔지만, 백성의 고통을 살핀 일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아울러 「苦海行」 한 편을 지어, 『심진록』과 짝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¹⁹⁾

1, 2차에 걸친 순시는 여러 목적을 담고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살피는 것

12) 최은주, 『이수정시총』 해제. 上里外巴 南巴 李中祿, 竝谷內洞 晚松 李鍾和, 大山豆背 花石 朴永脩 등 함안의 문인과 河東司果秋棠金昌守, 星州進士石醒金寅吉 등 관아에 잠시 머물던 오형묵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다.

13)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0.03.27. “大抵到郡周歲之間, 滯碌於簿書之會, 薰惱於椎剝之場, 偷不得暫時寬閒快豁之境矣. 迺於今日, 得與一鄉賢士, 永日交酬於嘉林勝榭之間, 歡欣和說, 交相媚愛, 使我眉山展而胸海曠, 沖襟冷冷, 充然若有得. 是非但鄉士之喜與余遊, 太守之樂得於人者夥矣.”

14) 吳玄默, 『智島叢瑣錄』, 1897.03.30. “莅此後, 儒士相從, 只是養士齋幾人而已. 每憶二藪亭前遊, 不勝馳神, 而第恨今難復得矣.”

15) 최성환, 「1897년 智島郡守 吳玄默의 島嶼巡行과 『尋眞錄』에 담긴 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358면. 그는 앞의 논문과 『국역 심진록』의 자료소개(「오형묵과 섬 사람들이 남긴 심진록의 주요내용과 가치」)를 통해 『심진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6) 「告示各書齋文」과 「尋眞錄序」은 각각 『지도총쇄록』 1897년 5월 2일과 1897년 5월 5일 일기에도 기록해놓았다.

17) 최성환, 위의 논문(2016), 375~377면. 2장 섬 지역 식자층 인물정보와 詩文 참조.

18) 주요 순행 지역에 대한 정리는 최성환, 위의 논문(2016), 361~363면. 참조.

19) 吳玄默, 『智島叢瑣錄』, “日前島行, 關由不一, 而察瘼居先, 興學次之. 事屬興學邊者, 已示於尋眞錄, 而惟察瘼邊事, 則無以悉舉. 故總之爲「苦海行」一則, 以備『尋眞錄』對耦耳.”

이었고, 그 다음은 교육이었다. 그렇지만 『심진록』은 각 섬의 書齋를 찾아다니며, 그들과의 만남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이에 오형묵은 순시 마지막 날에는 「苦海行」을 지어 『심진록』의 대를 맞추었다.

『심진록』의 마지막은 순시가 끝나는 4월 29일이 아니라, 지도에서 오형묵의 중점 사업으로 여겼던 양사재가 완성된 5월 16일이다. 『심진록』이 교육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흥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양사재 건립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양사재가 완성된 날이면서, 그가 여수로 발령이 나면서 급하게 巡題 날짜를 잡아 거행한 날이다. 수백 명이 모여 즐겼기에 그는 일기에 小引을 짓고 시도 적었고, 이 일기도 고스란히 『심진록』에 들어갔다. 金寅吉과 金聲鐸의 발문으로 『심진록』은 끝이 난다. 5월 2일 일기에서 두 차례 섬에 다녀온 사실과 시문 및 여러 선비들의 글을 모아 책자로 편집하고 『심진록』이라 이름 지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열흘 사이에 필사자를 동원하여 16부를 작성해, 동행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심진록』은 『지도총쇄록』에서 순시할 때의 일기의 편집본이라 할 수 있다.

『聯芳錄』은 초대 여수 군수 시절 봄에 흥을 내기 위해 서재 문인들과 石泉寺와 관아의 超然閣, 烟雲供養室에서 시를 지었다. 모아두지 않는다면 어느덧 사라질 것이기에 詩體와 시의 수준은 따지지 않고 모은 총 133편을 1권으로 만들고 『聯芳錄』이라 지었음을 밝혔다. 17本을 별도로 만들어 각 서재와 장원에게 한 권씩 주었다.²⁰⁾ 「연방록서」 아래에 小序가 하나 더 붙어있는데, 이 글에는 봄에 얻은 시를 모아 『연방록』으로 엮은 뒤에 돌산을 유람하면서 수창한 작품 백여 편을 모았는데, 이 또한 『연방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은 또 다른 봄에 대한 작품이니 부록으로 넣는다는 내용이다.²¹⁾ 이 책은 여수 석천사와 관아의 초연각, 연운공양실에서 서재 사람들과 수창한 시와 아울러 돌산을 유람할 때 수창한 시가 합쳐진 형태이다. 『연방록』도 『심진록』과 마찬가지로 일기 형식에 오형묵의 시와 수창한 시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²²⁾ 『연방록』은 청명날 석천사의 시회, 3월 3일 초연각의 시회, 연운공양식 완공식의 시회까지 세 번에 걸친 시회에서 나온 수창시를 모은 것이다. 특히 석천사의 시회에 대해서는 수령으로서 연 시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한 바 있다. 『쇄언』에 파편화되어 서술된 시회와 부분적으로 실린 돌산 유람의 전모를 『연방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麗水郡誌』는 고종 대에 새롭게 신설된 여수군을 맡았을 때 제작한 군지이다. 서두에 오형묵이 1899년에 쓴 「全羅南道麗水郡邑誌序」가 실려 있다.²³⁾ 그가 처음 여수군지를 만든 뒤로 1900년, 1902년에 崔正益, 尹豐楨이 쓴 서문이 붙은 『全羅南道麗水邑誌』가 간행되었다. 그가 최초로 여수군지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 吳弘默, 『聯芳錄』, 「聯芳錄序」. “余於詩, 雖不能窺其閫域, 而春來少事, 苦無遣興之方. 乃與郡齋諸名勝, 日從事於評花吟鳥之場. 石泉寺, 超然閣, 烟雲供養室諸作, 共爲一百三十三篇矣. 蓋其體製聲律, 未必盡中於可與言之科, 然要亦春園衆芳中出來也. 如苟自少而不爲綴拾, 則幾何不同歸, 於飄花過鳥之可哀哉. 故無問五七與巧拙, 都聚成一卷, 名曰聯芳錄. 而別書十七本, 各一於各齋及壯元人, 以備詩壇故事. 因叙次其語, 弁于卷首.” 『총쇄』 책19에도 실려 있다.

21) 吳弘默, 『叢瑣』 冊19, 序○麗水郡, 「聯芳錄附錄小叙」. “余既收聚春間所得詩編之爲聯芳錄. 錄既成, 又有突山遊觀之行. 其得於唱酬諸作, 共爲百餘頁. 而此亦聯芳中諸人一春之作, 則援入於聯芳似無碍. 以茲附爲續編, 因以數語識其槩焉.” 『총쇄』 책19에 「聯芳錄附錄小叙」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2) 시의 연작 순서는 매번 다르지만, 첫 번째 시의 연작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蒞人 吳弘默, 石醒 金寅吉, 晚隱 柳敏烈, 星州 金琪鉉, 梅泉 延鳳壽, 藍田 玉采振, 延鶴壽, 金瑩模, 金俊赫, 張在碩, 崔玉東, 鄭寬榮, 鄭成植, 呂在煥, 金奉立, 林春成, 許柱, 金在浩, 金性汝, 張辰洪, 張辰采, 石友金象鉉, 金璟源, 俞成實, 郭塚玉, 吳鶴振.

23) 고종 연간에 전국적인 규모로 읍지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1899년은 마지막 읍지 제작의 해였다. 오형묵의 『여수군지』제작도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관계가 없지는 않을 듯하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대영, 「조선후기 邑誌의 편찬과정과 지식인의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三呼萬歲帖』은 익산 군수 겸 전라북도 量務監理를 맡고 있던 광무 5년(1901) 7월 16일 開國紀元節과 7월 25일 萬壽聖節²⁴⁾에 양무소의 동료 인원 65인과 경축하면서 노래하고 축원하는 시를 지었다. 다음 날 進宴日에 또 마을의 노인 37인을 불러 함께 즐겼다.²⁵⁾ 『삼호만세첩』의 서문은 오형묵과 量務委員 申鉉穆·白轍洙이 썼고, 발문은 量務委員 李喬赫이 썼으며 수창한 명단이 실려 있다. 총 2번의 수창 시가 실려 있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명단과 약간의 출입이 있다. 진연일에 수창한 시들은 부록 형태로 붙어있는데, 「進宴日慶祝詩序」는 前僉正 蘇正奎·前監役 李鍾林·副司果 李肯植·進士 姜佑亮이 썼다. 이어서 진연일경축시의 수창 명단도 실려 있다.

이들 동안 지은 시들을 ‘三呼萬歲帖’으로 장정하고 서문을 써서 고종에게 진상하였다. 왜 하필 익산에서 『삼호만세첩』이라는 책을 만들어졌을까. 익산에서의 만수성절은 오형묵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지도·여수·진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로 탁지부에서 징계를 요청하여 진보에서 면직이 되었다.²⁶⁾ 그 이후 평리원에서 대질조사를 받아 공화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울에서 받은 기별에는 아직도 그가 공전을 납부하지 않아 면직되었다는 사실이 정정되지 않은 듯하다. 오형묵 입장에서는 엄청난 누명으로 면직이 되고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익산 군수에 임명되었다. 오형묵은 자신에게 다시 수령을 맡긴 고종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음은 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 그 결과 익산에서 『삼호만세첩』을 활자로 인쇄하는 안건을 논의하게 되었고, 이 일을 아문에게까지 상달하여 성대한 행사로 칭송받게 하였다. 『익산쇄언』에 따르면 광문국의 사장을 찾아가 130부 인쇄를 의뢰를 하였으나 인쇄소의 실수로 120부만 인쇄되었고, 12부가 먼저 서울에서 배포되어 나머지 108부를 받았다. 『삼호만세첩』은 임금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날로 봉건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만수성절에는 감사와 수령들이 으레 봉물을 상납하는 날로, 척신을 통해 궁중에 바쳤다고 한다.²⁷⁾ 오형묵이 상납한 물건은 알 수 없으나, 이날 익산의 양무 위원 및 학원, 기타 문인들이 황제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하는 시를 바쳤음을 알 수 있다.

『尙齒會帖』은 마지막 임지인 평택 군수 시절의 수창집이다. ‘尙齒’라는 뜻은 연세가 높은 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중국 唐代 시인 白樂天의 상치회에서 비롯되었다. 평택에서 상치회가 열렸던 그 시기는 오형묵이 임지에 부임한 첫해이며, 또한 고종이 51세인 해였다. 봄에 고종이 靈壽閣을 방문하고 그때 노인을 공경하는 예식을 舊章禮에 따라 시행하였다. 그러자 수령들도 이를 본받아 각 지역의 長老를 극진히 대하였다. 그 이듬해 겨울에, 78세 樞密院 議官 松臯 姜永元, 70세 오형묵, 66세 副護軍 雲樵 李容儀, 62세 司馬 石醒 金寅吉, 58세 副護軍 碧下 方大轍, 53세 憲郎 松隱 李漢英, 52세 滄山 金鳴洙, 52세 參奉 畹石 姜蘭秀가 모여 술을 마셨다. 다음날 오형묵은 어제의 술자리가 백향산의 모임[香社]과 나이가 다르지만 참석한 인원과 관직을 가진 자들은 비슷하니 후대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前太史官 滄山 金鳴洙의 서문이 있다.

『여수읍지』를 제외한 『이수정시총』, 『심진록』, 『연방록』, 『삼호만세첩』, 『상치회첩』은 당시

24) 1895년부터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음력 7월 16일을 ‘개국기원절’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공표하였으며, 고종의 생일인 7월 25일 또한 만수성절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공표하였다. 오형묵 저/이의강 외 역, 『익산총쇄록 상』, 익산시, 2022. 278면. 주석 참고.

25) 『삼호만세첩』에 대한 전말은 「익산쇄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수쇄언」에서 『연방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듯이 「익산쇄언」에서도 『삼호만세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여수쇄언」에 비해 「익산쇄언」은 7월 25일, 7월 26일 날짜가 분명하고 상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6) 吳宥默, 『叢瑣』冊21, 序○益山郡, 「自歎詩小敘」

27) 황현 저/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 지성사, 2005. 258면.

그 지역의 인물들과의 사회의 수창시를 정리한 것으로, 지역 사람의 규모와 네트워크를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²⁸⁾ 함안·지도·여수·익산·평택 다섯 지역의 문인 현황과 그 지역의 한문학 실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⁹⁾

3. 관아필사본과 아전의 서역

그는 지방 수령이자 지방의 지식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책을 편찬하는 지식의 보존자 겸 창작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출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존재한다.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서 필사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경희(2006)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³⁰⁾ 동경대 아가와(阿川) 문고에 소장된 자료에서 필사에 참여한 서리들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경우를 밝혔다. 실제 오형묵의 경우도 관아에서 아전들에게 서역을 시켰고, 이를 일기에 기록으로 남겼으며 현재 그의 저술은 그 결과물인 것이다.

그의 일기에서는 조선 전반에 걸쳐 지방관이 보여준, 중요 서적 간행과 선조 문집 발간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는 간행보다는 필사의 형태로 지식을 정리하고 보존하였다. 선조의 선양을 위한 작업으로는 그의 아버지 소계 吳山秀(1799~1864)의 문집을 필사하여 편찬하고 서문을 받는 정도에 그쳤다. 그가 주력했던 것은 관아에 없는 책을 비치하거나 개인 소장품을 위해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후자의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 자신이 필요한 책을 다른 지방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와 필사를 해두기도 하였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방 관아의 필사본의 한 단면을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관아에 보관할 용도로 필사한 사례는 함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함안 관아에 丁若鏞(1762~1836)의 저서 『欽欽新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전들을 시켜 필사하도록 하였다.

본군의 秋廳에 예부터 『欽欽新書』가 없었다. 금년 봄에 예속된 아전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로 하여금 등사를 베끼기를 온전하게 하여 해당 청에 쌓아 두도록 하였다. 이 일을 맡은 자는 德之로서 그 일을 기록하여 현판에 걸었다 하였다.³¹⁾

『함안총쇄록』에 기록된 현판 내용을 통해 『흙흙신서』가 처음부터 인쇄·반포되지 못해 필사본만 전해졌다는 사실과 고을[州郡]에서는 보기 힘든 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항현의 『매천야록』에서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³²⁾ 『흙흙신서』는 정약용이 지방 수령들이 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치사·살인사건을 처리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책으로,³³⁾ 지방 관아에서 『牧民心書』와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이다.³⁴⁾ 오형묵은 『흙흙신서』를 필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함안에 처음으로 『흙흙신서』를 비치하게 되었다.³⁵⁾ 이때 『흙

28) 최은주, 『이수정시총』 해제.

29) 『춘우실시』부터 『상치회첩』에 관련된 내용은 안정은(2025) 박사학위논문 102~111면 재인용.

30) 노경희, 「일본 소재 정약용 필사본의 소장 현황과 서지적 특징」, 『다산학』 9,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31) 吳弘默, 『咸安叢瑣錄』, 1892.11.17. “本郡秋廳, 舊無『欽欽新書』, 今春屬吏之善書者, 謄繕全局, 使之貯置該廳, 直於是者德之, 記其事, 揭板云.”

32) 노경희, 위의 논문(2006), 198면.

33) 김영석, 『흙흙신서』 해제.

34) 심재우, 『『흙흙신서』 연구의 현황과 관련 필사본의 유형』, 『다산과현대』 12,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9.

35) 吳弘默, 『咸安叢瑣錄』, 1892.11.17. 현판의 내용 “幸我官司主吳公, 莅茲數年, 慨然發歎于郡胥之昧

흠신서』는 어디에서 빌려왔다는 내용이 없어 원본의 소장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수령이 『흠흠신서』를 관아에 두고 재판 실무에 활용하려고 했음을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으로는 개인 소장을 위해 어떤 책을 필사하였는지 살펴보겠다. 오형묵의 경우, 관아에 비치할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는 개인 소장용으로 관아 아전을 이용하여 필사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는 자인 현감 시절에 향교에 보관되어 있던 『輿地勝覽』을 등사하고 싶었으나 영남에는 판본이 없고 여유가 없어 謄寫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 임지인 함안은 자인과 다르게 글씨를 잘 쓰는 관리가 많아 등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에 자인에 인편을 보내 『여지승람』을 빌려와 마침내 실행하였다³⁶⁾ 그러나 자인 향교의 『여지승람』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달 후쯤 함안의 선비 懼庵 趙性忠을 통해 진주 성씨 집안에서 빌려온 『여지승람』 전질을 통해 보충하였고,³⁷⁾ 일 년 뒤에 의령에 비치된 『여지승람』 두 책을 빌려다가 교정하였다.³⁸⁾ 이후 그는 『여지승람』의 체제를 본떠 『여재촬요』라는 지리서를 편찬하였다. 『여지승람』의 등사 과정은 『여재촬요』 편찬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글씨 잘 쓰는 아전이 있던 함안에서 또 다른 책을 필사하였다. 바로 洪萬選(1642~1715)의 『山林經濟』인데, 관아에 비치할 용도가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필사하였다. 이 책은 先山이 있는 永平(지금의 抱川)의 선비 愼宗杓에게 허락을 받고 빌려온 것이다. 이후 아전들에게 나눠주고 필사하게 하였다.³⁹⁾

이처럼 지식의 보존과 창작에는 아전들의 서역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오형묵은 書役으로 고생하는 아전들을 위해 음식 제공한 기록도 자주 남겼다.⁴⁰⁾ 특히 지리서 『여재촬요』를 편찬할 때는 아전들의 서역을 강도 높게 사용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이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⁴¹⁾ 오형묵은 함안 재직시절 1892년 7월 23일 일기에서 『여재촬요』가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서문 초고를 기록하였다. 1893년 1월 7일에는 순상 이현영에게 『여재촬요』를 보여주고 서문을 부탁하였다.⁴²⁾ 같은 해 2월 20일 일기에서 『여재촬요』의 印刻이 이미 2월 16일에 시작했으며 인각할 장소는 관노의 방이고 刻手는 文起老, 趙性魯, 李童임을 적고 있다. 2월 3일 고성군수로 전근발령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함안에서 『여재촬요』를 인각을 시작한 것이다.⁴³⁾ 20일에는 새 원님이 온다고 하여 『여재촬요』의 刊本은 조장환, 김종석에게 맡길 계획한 날이었다.⁴⁴⁾ 고성으로 관직을 옮긴 오형묵은 『여재촬요』 인각 일을 계속 함안 관리들과 진행

於章式，抽出巾笥中一部卷帙，使之翻謄而傳授，即吾咸之暇昔所未有者也。”

36)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2.윤6.13.

37)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2.10.17.

38) 吳玄默, 『固城叢瑣錄』, 1893.09.29. “宜甯所在『輿地勝覽』二冊，借來校正.”

39)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2.11.19. “『山林經濟』嘗所願儲者，而永平愼雅宗杓許借來，分給諸吏，使之謄寫.”

40) 吳玄默, 『固城叢瑣錄』, 1894.02.19. “本邑問安使來，見石醒書，諸吏輩書役勤苦到底云，故答以日間一度饗饋.”

41) 임은진, 「개화기 지리교과서 『여재촬요』의 집필 및 출판 과정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Vol.55, 대한지리학회, 2020.; 김남규, 「靑園 吳玄默의 慶尙道 지역 叢瑣錄 연구-漢詩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42)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3.01.07. “入澄閣，以所撰輿載撮要，呈覽巡相，一回披過，大加嗟賞，曰：吾見方輿書多矣，或汗漫，或疏略，未有若是之博新，兩至眞版籍之要寶也。余對曰：視務之暇，搜括就得，恐不足爲巾箱之物。今茲呈過，誠亦取正之計，而蒙荷不斥，欣幸之甚。既免覆瓿之歸，則乞弁一語，千萬之望。巡相曰：第當留念矣。仍辭出中軍，月初作英陽本第之行，望間還衙，云午刻出南門，玄風邑店宿.”

43)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3.02.03. “春分申刻，接見京第電報，則去晦日，都政移拜固城府使.”

44) 吳玄默, 『咸安叢瑣錄』, 1893.02.20. “輿載撮要刻役已於今十六日始之，設所於奴房，刻手文起老·趙性

하였다. 1893년 4월 4일 일기에 함안에 들어가 각수 문기로를 만나 4월 그믐이나 다음 달 초 사이에 마무리 될 것이니 정리해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⁴⁵⁾ 4월 12일에는 『여재촬요』를 다시 교정한 다음에 한 벌 베끼기 위해 固城 사람인 黃鶴來를 만나보았고, 일을 맡길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이날부터 교정을 시작하였다. 24일에는 함안에 사는 조주한의 편지에서 『여재촬요』 교정이 끝났음을 보고받았다. 오형묵은 글씨 잘 쓰는 아전들에게 『여재촬요』 淨書일을 나누어 맡겼다. 그들의 수고로움을 치하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흰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서 제공하였다.

함안의 각수 문기로와 이동은 끝까지 『여재촬요』 각수 일을 완수하였다. 처음에 5책의 『여재촬요』를 만들었고 이후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 오형묵은 『여재촬요』를 5책본, 1책본, 10책본 등 다양한 판본으로 동시에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그는 일기에 들어간 비용과 몇 질을 찍었는지 누구에게 배포했는지에 대해 매번 일기에 기록해놓았다.⁴⁷⁾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여지승람』과 『여재촬요』를 다시 교정을 하였다.⁴⁸⁾ 1894년 1월 9일에는 『여재촬요』 인쇄지를 의령에서부터 들여왔고, 書役을 하는 아전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었다.⁴⁹⁾ 1894년 5월 7일 드디어 『여재촬요』 열 책 장책까지 완료하고 황학래를 시켜 제목을 쓰게 하였다.

『여재촬요』에 대해 3년간 공무 속에서도 편집하고 교정한 성과물이라 스스로 평가하였으며, 이 일로 머리가 세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게 한 작업이었다. 주목할 대목은 그 역시 서역을 했던 아전들이 병이 날까 염려 했으나, 책의 완성을 위해 오직 그들을 독려하여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다.⁵⁰⁾ 책의 완성이 서역을 하는 아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형묵 역시 체감하고 있었음을 그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재촬요』는 오형묵의 젊은 날 유람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지승람』을 통해 보충한 지식을 바탕으로 함안과 고성 재직 시절 여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지리서이며, 무엇보다 아전들의 서역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⁵¹⁾ 『여재촬요』가 고종 연간 교육기관인 학부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

魯·李童又俊, 其間連泊於編書點閱, 一未看審其工拙. 是日撥出作廳, 歷入刊所, 見其割版, 可謂善手. 但字勢細促, 用功倍難, 以五兩銅二把草施給. 新倅既云到任, 則下處淹留, 雖一日亦所昌披. 姑先擇日, 今二十八日辛巳上吉, 以關文下來. 於其間則赴任, 次酌定如委於固城, 兼付養老堂書. 連日許多勘簿, 勢無以周及於冊役. 撮要刊本, 專委於趙莊煥, 金宗碩書之.”

45)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04.04. “村內諸知舊, 皆來見, 文雅亦來. 刻役幾乎了畢, 晦初間似可訖. 功必整頓, 以送云矣.”

46) 박인호, 「『여재촬요』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No.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6면. 표1. 『여재촬요』 이본 비교.

47)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06.02. “文起老其間校整板註後, 印出三十帙, 粧黃二十帙, 上送京第一件, 送李山陰. 未刻文雅李童, 并還去, 以十一兩錢及海蔘紅蛤各壹貼施意. 酉刻, 咸安通引姜龍周來宿.”; 1893.06.11. “姜都正來去, 其間使邑人金永煥, 印出輿載撮要二十八本, 粧黃.”; 1893.06.12. “十二日. 所刻輿載撮要, 只是一冊, 略而又略者也. 其間屢經加增, 爲五卷, 草本爲三件. 金春坡、裴松坡及石醒, 各一件分給. 石醒謝曰: 此是使君積費心膂, 跨歲乃成者, 而得之者, 便同漁人之坐收, 固已感荷. 而況不出戶庭, 覽盡寰宇之要寶乎! 但是冊, 非久爲天下公物, 使君雖欲私之, 豈可得耶? 仍相與一噓.”

48)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07.16. “閒寂無聊, 通于衙留人, 取來輿覽及所撮新書, 更加丁乙. 晚後携筇出林藪間, 望見野色, 稍稍舒青, 較勝於旱中初料.”

49)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01.09. “宜甯白紙十塊, 以輿載撮要印出次貿來, 書役諸吏等處餐饋.”

50)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05.07. “輿載撮要十冊, 告成粧績後, 使黃生鶴來書題目. 此是三歲簿牒膠擾中, 撰次編摩, 無日不汨汨, 靡時不役役. 鬢霜眼花, 未必不自這裡從來也. 今焉完就, 儼然爲几案上物. 試一披回, 舉天下在吾指掌, 孰云世間事勞而不得也! 方其分手書寫也, 豈不念諸人之疾蹙, 而誠以姑息, 不足以圖遠猷, 小惠不足以就大業. 所以不顧睚眦, 惟務檢董, 以至有今日出梢也. 雖以當時苦厭者觀之, 亦應忘既往之勞, 而喜成物之功矣.”

51) 吳弘默, 『叢瑣』冊6, 「輿載撮要十冊告成」, “妙齡賦遠遊, 豪氣貫墟牛. 覽了三千里, 遍幾二百州. 搏鵬終有歇, 磨螳詎能周. 況值名疆絆, 無緣宿願酬. 爰從輿地載, 聊寓木天搜. 簿墨逾偷暇, 圖經廣送求. 試令初草藁, 旋覺太戈矛. 中外應殊例, 古今或不侔. 更張惡可已, 磋切暫靡休. 殫巧編摩手, 揩昏看閱眸.”

으로 보면 당시 지리서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⁵²⁾

그가 『여지승람』을 포함한 책들을 필사하거나, 『여재촬요』를 포함한 자신의 책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관아에 글씨를 잘 쓰는 아전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글씨를 잘 쓰는 아전이 없을 경우에는 재주 있는 어린 아전에게 글씨를 연습시켜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 지역의 書生들에게 서역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叢瑣詩抄』은 오횡묵이 槐泉 劉士健의 요청으로 乾·坤 2책으로 엮은 시문집으로, 通引 趙允基에게 명하여 필사한 책이다. 조운기의 필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만든 책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유사건에게 보냈다.⁵³⁾ 현재 『총쇄시초』는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역외반출도서로 지정되어 인쇄본이 소장되어 있다. 오횡묵은 조운기의 글씨를 수준 낮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운기의 인품에 대해 차분하고 꼼꼼하며, 단정하고 깨끗하다고[安詳端潔] 평가하였다. 다만 바닷가 외진 곳에 태어나 배운 것이 부족하여 재능을 아쉽게 여겼다. 이에 오횡묵은 직접 글씨 쓰는 일을 연습시켰고, 조운기의 실력은 겨울에서 봄까지 한 계절이 바뀌는 동안 괄목상대할 정도로 발전하였다.⁵⁴⁾ 그는 조운기를 칭찬하며 古詩 한 수를 남겼다.

(중략)

해서를 알면 절반은 배운 것이니 楷書知亦學之半
문방사우와 벗삼게 하여 使與文房四友遊
날마다 부지런히 붓을 잡고 申勤課日抽毛穎
겨울 내내 공들여 잘은 글씨 베끼고 刻苦經冬寫蠅頭
때때로 경계하며 지도하니 以時提警兼開導
나는 스스로 엄한 스승 되어 而我自處嚴師翁
하루는 짧아도 달마다 채우고 日計無多月計足
지금은 예전과 다르도다 如今不與嚮時同
곁에서 보는 이마다 놀라고 감탄하니 傍人看見皆驚歎
더는 오나라의 아몽이 아니로다 非復吳下之阿蒙

(후략)

이처럼 그는 지역에서 글씨를 잘 쓰는 인물을 발굴하였고, 직접 글씨 연습을 시켜 지방의 인재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기록은 책의 편찬자가 아닌 필사한 인물과 상황을 뒷받침한다.

지도 군수 시절에 아전 출신이 아니지만 서역을 맡긴 인물로 스무 살의 趙秉鎬가 있다. 『총쇄록』의 시문을 抄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관아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조병호에게 서역을 맡겼고, 그가 돌아와 보여준 결과물을 보며 매우 만족해

楮生挑長價，毛族怨童頭。到得垂成日，忙似促課秋。纔回粧剪綴，仍又着題投。首尾經三歲，摩挲翫六洲。知爲珍寶藏，要寡撰粧尤。言念分勞大，難同自計猷。縱嘗開曲宴，諒足費殷憂。薇燭餘天錄，牙籤證鄴侯。役煩功亦鉅，器就樂還優。海國新書出，桑榆我乃收。”

52) 최시완, 「조선말기 간행 『여재촬요』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2면.

53) 吳弘默, 『智島叢瑣錄』, 1897.01.21. “昨歲余在京時，劉槐泉士健屢言，以余南遊所作詩抄示爲托。故近命趙允基抄集叢瑣錄中諸作，聚編爲乾坤二冊，名之曰叢瑣詩抄。蓋其所抄一任渠手，未盡其善，頗不愜意，而既成之物不必棄之，故齎付士健，聊博一粲之資。”

54) 吳弘默, 『智島叢瑣錄』, 1897.03.17. “通引趙允基爲人，安詳端潔，頗多嘉尚，而但恨其生在海隅，所見所學未充，其才爲可惜。余故令書寫習之，自昨冬至今春，其所進可謂刮目相對。作之不已，則亦將誰渠不若勉之哉。”

하였다.⁵⁵⁾ 오형묵이 매우 각별히 대하였으며 養士齋의 掌議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덟 번째 임지였던 익산에 있을 때는 『三國志』와 『西廂記』를 읽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총쇄』에 ‘일천 잔 소주에도 취기가 안 오르고, 기이한 책 읽기 시작한 것 후회하네[千鍾火酒難成醉，一部奇文悔誤看.]’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기이한 책은 『서상기』으로 추정되며, 「有懷吟」이라는 시에서 ‘근심에 정서가 편안하지 못해서 삼국연의 손에 들고 읽는다[悄悄意不適，坐讀三國誌.]’라고 하였다. 또 다른 시에서는 ‘신문 통해 세상 형편 찾아서 읽어 보고 병상의 심정 김성탄 책으로 달래 왔다[世情搜閱新聞紙，病緒消除聖數編.]’라고 하여, 그가 신문을 통해서도 세상 정보를 얻고 김성탄의 글을 통해 근심을 잊고자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전 일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책들로, 진보 시절 탁부대신 조병직에게 ‘결전 납부 지체’로 인해 고발당한 일로 인해 익산에서도 이 세전 미납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⁵⁶⁾ 이를 잊기 위해 그는 ‘기이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에 『삼국지』와 『서상기』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에 희귀했던 『서상기』懸吐本을 얻게 되었고, 이 책을 필사하기 위해 익산의 인물인 蘇錫政, 盧秉奎 두 사람을 선택하였다. 소석정에게는 그의 再從인 蘇錫喆에게 필사를 부탁하는 편지를, 노병규에게는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원본 책, 2자루의 붓, 1개의 먹을 보냈다.⁵⁷⁾ 소석철이 『서상기』를 필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노병규의 아들은 「익산쇄언」에 기록된 ‘조금 뒤 주인의 장남 曠壽와 셋째 아들 載壽가 찾아왔다. (중략) 장남은 『紀年兒覽』과 『西廂記』를 필사한 사람이라 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필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택 수령 시절 『醫鑑集要』라는 醫書를 편찬하였다.⁵⁸⁾ 이 의서는 『동의보감』을 초록한 책이다. 평택 현감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69세였고, 현기증이 심해져 자주 고통을 토로하였다.⁵⁹⁾ 이로 인해 의학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동의보감』 초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는 아들 익선, 卞道義, 柳容明과 『동의보감』을 초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많아서 평택의 문인 정은교의 서당에서 글씨를 베낄만한 書手 10명을 구해 작업을 하였다. 그는 직접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주었고, 서재 수리비용으로 20냥을 주고 왔다. 이후 卞道義에게는 교정을 맡기고 아전 朴來熙에게는 粧繕하게 하여 『의감집요』라 이름 지었다.⁶¹⁾ 규장각에는 저자 미상의 『의감집요』 필사본 6권 7책이 소장되어있다. 동의보감을 초록했다는 점과 모두 7책이라는 점, 무엇보다 책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규장각의 『醫鑑集

55) 吳弘默, 『智島叢瑣錄』, 1896.12.21. 趙炳鎬入來, 向日所托書役訖工帶來. 見其造冊與字畫, 極精且楷. 其爲長者, 誠敬之意, 可驗於此, 尤覺佳妙也.

56) 이는 익산 군수 시절 지은 「自歎詩小序」에 자세히 나와 있다.

57) 吳弘默, 『叢瑣』책20, 書○益山郡, 「與東邊蘇司果錫政書」, 「與中里盧鄉長秉奎書」.

58) 吳弘默, 『叢瑣謾選』, 「平澤瑣言」. “東醫寶鑑抄略謄寫者, 合爲作編, 凡七冊, 使朴來熙粧繕, 名曰醫鑑集要.”

59) 吳弘默, 『叢瑣謾選』, 「平澤瑣言」. “所患眩暈, 一直無減, 廣探醫藥, 終無顯效, 日以苦惱矣.” 현기증으로 인해 이동을 못하는 횡수도 잦아졌다.

60) 吳弘默, 『叢瑣』冊14, 詩○平澤郡, 「平易堂, 初夏縱筆. 并引」. ‘緣病抄醫爲看症’라는 시 구절이 있다.

61) 吳弘默, 『叢瑣謾選』, 「平澤瑣言」. “近以醫鑑抄錄, 與翼兒及卞道義·柳容明, 日事惱神. 書役甚艱, 請邀金章玉, 使之如干謄出事申托.”; “東醫寶鑑, 間擬抄出, 而只恨寫手之不足矣. 向聞於鄭竹醒, 則本書齋諸生中, 可堪書寫者, 爲十餘人云. 故將欲使之抄出, 而本冊中多有刪削, 不可不親自申喻後, 庶無錯誤. 醫鑑九冊帶持出, 往勤孝谷, 面對諸生逐條曉諭. 筆九柄. 墨三丁分給. 歷入書齋, 兩頭有房, 中有廳軒, 凡七間, 大房二間, 已爲居處, 而越房一間, 因財力不敷, 未得修飾. 則三十名學員, 同處一房, 狹窄難堪云. 昨年此屋構成時, 錢兩未及施意, 故錢二十兩出給, 使之修理居處事申喻. 轉往李炳佐家, 暫話而還.”

要』가 그의 저술임을 상정할 수 있다.⁶²⁾

오형묵은 관아의 아전들을 활용하여 관용서뿐 아니라 개인 소장용 필사본을 다수 제작함으로써, 지방의 지식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글씨에 능한 아전들을 교육하고 활용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서재에서 인원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세기 말 지방 관아의 지식 생산과 필사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의 사환일기는 지방 수령이 수행한 지식 행정과 지역 지식 공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19세기 말 조선의 지방관 吳弘默(1834~1906)의 사환일기를 중심으로, 지방의 관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식의 생산과 보존, 그리고 유통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오형묵은 공상소 감동낭관으로 시작하여 정선·함안·고성·지도·여수·익산·평택 등 아홉 지역의 수령을 연이어 역임한 인물로, 각 임지에서의 경험을 방대한 일기와 저술로 남겼다. 그의 일기는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지방 수령이 직접 수행한 지식의 수집·편찬하고, 교육·출판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첫째, 오형묵의 일기는 지식 보존자로서의 수령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에게 서역을 맡겨 관용서와 개인 소장용 필사본을 다수 제작하였다. 특히 『흠흠신서』의 필사와 비치, 『여지승람』의 등사, 『역재촬요』의 편찬과 간행 과정은 당시 지방 관아에서의 지식 관리 체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오형묵은 지식의 창작자이자 편집자로서 지방의 문화적 생산을 주도하였다. 그는 각 지방의 문인들과 시회를 열었고, 이를 『춘우실시』, 『이수정시총』, 『심진록』, 『연방록』, 『삼호만세첩』, 『상치회첩』 등의 형태로 수창집을 남겼다. 이러한 수창집들은 당시 지역 문사들의 네트워크와 한문학 활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지방의 지식 공간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셋째, 오형묵의 필사와 저술 활동은 지방의 필사문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수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글씨에 능한 아전들을 발굴·훈련시켜 인재로 성장시켰으며, 이들이 제작한 필사본이 그의 저술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19세기 말 관아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지식의 재생산소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아전의 서역과 필사 기록은 문헌의 주변부에 머물던 하층 실무 인력이 지식 생산의 주체로 등장한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오형묵의 사환일기는 19세기 말 조선의 지방 지식 공간을 복원하는 결정적 사료이다. 그의 일기와 저술은 근대 이전의 지방 수령이 어떻게 중앙의 학문과 제도를 현지의 실정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지역의 지식을 수집·편찬·보존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오형묵의 사례는 조선 후기의 지식 체계가 단일한 중심으로부터의 하향식 전파가 아니라, 지방에서의 필사·교류·편찬이라는 상향식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입증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오형묵의 사환일기를 다른 동시대 지방관들의 기록과 비교하여, 조선 후기에 근대 초로 넘어가는 시기의 지식 생산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사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지방에서 열었던 詩會와 지방의 문인들에 대한 증언까지 살

62)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채언』, 135면. 여기에서도 「평택채언」에서 언급된 『醫鑑集要』가 규장각본임을 명시하였다.

펴본다면, 오형목이 머물렀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당대 지방의 지식 공간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吳弘默, 『固城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208.
- _____, 『工桑所實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2516-3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C6A-8
- _____, 『三呼萬歲帖』, 新鉛活字本, 원광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AN811.9-○472.
- _____, 『尙齒會帖』,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D2B-30.
- _____, 『尋眞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古3653-17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B15HB-9.
- _____, 『昭溪先生集』,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648-52-40.
- _____, 『勝題拾遺』,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B15AB-10.
- _____, 『興覽撮要』,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B15AA-8
- _____, 『麗水郡誌』,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B15BB-10.
- _____, 『興要三選』,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B15AA-8
- _____, 『興載撮要』,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B15AA-1; PB15AA-1B; PB15AA-1C; K2-4184.
- _____, 『興載撮要』, 筆寫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15568-v.1-5.
- _____, 『聯芳錄』, 筆寫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D02B-0257 v.1.
- _____, 『嶺南救恤日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古朝31-50.
- _____, 『醫鑑集要』, 筆寫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12678-v.1-7.
- _____, 『二樹亭詩叢』,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2-10.
- _____, 『慈仁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3608.
- _____, 『旌善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203.
- _____, 『智島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299.
- _____, 『唱酬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4-247-1.
- _____, 『蒨園詩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4-250.
- _____, 『春雨室詩』,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3-222.
- _____, 『春雨室實記』,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511-52-11.
- _____, 『叢瑣』, 『韓國文集叢刊續集』 141~142, 한국고전번역원.
- _____, 『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4-6566.
- _____, 『叢瑣錄』, 筆寫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대학원 D2 A337 1~5.
- _____, 『叢瑣錄選』,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7-192.
- _____, 『叢瑣謾選』,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7-191.
- _____, 『叢瑣詩抄』,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644-425.
- _____, 『叢瑣抄選』,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PD3B-21.
- _____, 『咸安叢瑣錄』, 筆寫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K2-4209.

2. 번역서

- 오형묵 著/이명래 譯, 『국역 정선총쇄록』, 정선문화원, 2002.
- 오형묵 著/허권수 외 3인 譯, 『慶尙道咸安郡叢瑣錄』 上·下, 함안문화원, 2003.
- 오형묵 著/이성우 譯, 『고성총쇄록』, 고성문화원, 2007.
- 오형묵 著/김정섭·김형만 譯, 『지도군총쇄록』, 신안문화원, 2008.(선역)
- 오형묵 著/김형만 譯, 『국역 심진록』, 신안문화원, 2014.
- 오형묵 著/김홍영 외 3인 譯, 『국역 자인현일록』, 경산시립박물관, 2018.
- 오형묵 著/허경진 譯,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채언』, 평택문화원, 2021.
- _____, 『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 2022.
- _____, 『평택군수 오형묵의 산문집』, 2023.
- 오형묵 著/이의강 외 譯, 『익산총쇄록』 상, 익산시, 2022.
- 오형묵 著/이의강 외 譯, 『익산총쇄록』 하, 익산시, 2023.
- 황현 著/임형택 외 譯, 『역주 매천야록』 상·하, 문학과 지성사, 2005.

3. 연구 문헌, 단행본

- 김남규, 「菴園 吳弘默의 慶尙道 지역 叢瑣錄 연구-漢詩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5.
- 김영석, 『흙흙신서』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김형태, 「匡西 朴震英의 사상적 토대 고찰 - 寒岡 鄭述를 위시한 師承 관계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 노경희, 「일본 소재 정약용 필사본의 소장 현황과 서지적 특징」, 『다산학』 9,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 박인호, 「『여재촬요』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No.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6면. 표 1. 『여재촬요』 이본 비교.
- 신영복, 『담론』, 돌베개, 2015.
- 안정은, 「吳弘默의 仕宦日記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 임은진, 「개화기 지리교과서 『여재촬요』의 집필 및 출판 과정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Vol.55, 대한지리학회, 2020.
- 정대영, 「조선후기 邑誌의 편찬과정과 지식인의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조헌열·김원주, 『함안총쇄록 답사기』, 개인 간행, 2019.
- 최성환, 「1897년 智島郡守 吳弘默의 島嶼巡行과 『尋眞錄』에 담긴 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 최시완, 「조선타기 간행 『여재촬요』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은주, 『이수정시총』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해제자료, 2020.
- 심재우, 「『흙흙신서』 연구의 현황과 관련 필사본의 유형」, 『다산과현대』 12,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2019.